

대학의 영어강의 확대에 대한 비판적 논의

김 달 효[†]
(동아대학교)

A Critical Approach on the Extension of Lecture in English at Colleges

Dal-Hyo KIM[†]
(Dong-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riticize (through available documents) the lecture in English at colleges. It is necessary that a study of English is emphasized in the era of internationalization. But, the indiscreet extension of lecture in English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principle, and philosophy of college's education needs reflective thinking.

This study criticized four dimensions, in other words the effectiveness of lecture in English, criteria of internationalization and college's competition of lecture in English, social inequality of lecture in English, and the harmfulness in the value of Korean language of lecture in English. First, most researches expressed the indiscreet extension of lecture in English was not effective in both students and professors. Second, many scholars and agencies on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college's competition excluded the lecture in English as criteria. Third, the indiscreet extension of lecture in English had the possibility of social inequality. And fourth, the indiscreet extension of lecture in English had harmfulness in the value of Korean language and Korean's thought.

College's education is an ivory tower in society. So, colleges should discard the thought that extension of lecture in English is the best way. Colleges should keep the purpose, principle, and philosophy of college's education.

Key words : Lecture in English, Inequality, Language value, Competition of college

I. 서론

2008년 1월 22일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영어공교육 강화방안을 주제로 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브리핑에서 '일반 과목 수업에서도 영어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가 본격적인 계획발표를 앞두고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자

28일 "영어몰입교육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급선회하였다. 결국, 영어몰입교육 도입 발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책적 미숙을 노출한 해프닝으로 결론이 났지만 기존의 영어 사교육 과잉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 이후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학을 상징하는 꼬리표처럼 여론에 회자되었다(EBS 지식채널e, 2008). 비록 모든 교과목의

[†] Corresponding author : 051-200-7078, kdhyo@dau.ac.kr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영어수업이라는 영어몰입교육¹⁾은 비판을 받아 실현 가능성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슈를 통해 전 국민들의 영어에 대한 경각심과 긴장을 유발하기에는 충분하였다. 그 단적인 예로 영어몰입교육이라는 이슈가 등장하자마자 JLS와 CDI 홀딩스 등 영어사교육 시장이 활황을 맞이하였고, 영어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영어공교육 강화라는 명목으로 초등학교 3, 4학년의 영어수업시수를 2시간으로 늘이고, 5, 6학년의 영어수업시수를 3시간으로 늘였다.

또한 2008년 4월 서울시 서초구는 '영어통용글로벌도시조성계획'의 일환으로 방배동에 영어몰입센터를 오픈하였다. 영어몰입센터는 2009년까지 서초, 양재, 반포 등에도 권역별로 추가 건립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합동안으로 2008년 6월 3일 '제주영어교육도시추진현황 및 기본방안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영어로만 생활이 가능한 지역'을 서귀포에 만들기 위해 영어전용학교, 영어교육센터, 외국교육기관 등을 설립 또는 유치하겠다는 것이다(EBS 지식채널e, 2008). 게다가,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월 28일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09년 2월 첫째 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 50%까지 허용, (2) 입학자격 완화 및 학력도 인정, (3)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정원의 50%까지 허용, (4) 입학요건의 한층 완화 등이다. 또한, 이 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

가 지금까지는 '외국인'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뿐 아니라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도 추가된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영어몰입교육 정책은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초중등교육에서 모든 교과가 아닌 영어 교과에 한해서만 영어교육의 강화가 반영되었지만, 영어교육 강화 정책은 사회적으로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대학교에서도 영어의 중요성이 강화되는데 바로 영어강의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즉, 영어 전공 관련 강의뿐만 아니라 영어와 상관없는 법학, 교육학, 인문학, 공학 등의 영역에서도 강의를 영어로 하도록 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학 영어강의 강화에 대한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능동적으로는 국제화 시대에 맞는 유능한 인력 양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들 수 있고, 수동적으로는 언론사의 대학평가 시 글로벌지수의 측정 항목에 영어강의 비율의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켜서 높은 순위에 포함되려는 전략 및 주요 대학들이 영어강의 비율 증가를 명문대학의 조건처럼 내세우는 것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들 수 있다. 언론사의 평가 준거 및 방법이 적합한 것인가의 문제와는 별개로, 일단 대학들 입장에서는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이러한 평가결과에 민감하게 또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각 대학들은 영어 강의 비율을 높여가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2008년도 기준에 의할 때,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강좌 수와 비율은 고려대 1186개(33.76%), 서강대 199개(17.92%), 서울대 592개(12.4%), 성균관대 371개(15.7%), 연세대 668개(27.02%), 한양대 498개(18.3%)였다. 그리고 이러한 강좌 수와 비율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이러한 추세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영어로 수업을 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등의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면, S대는 교수가 3학점짜

1) 영어몰입교육(English immersion program)이란 (영어권) 원어민 교사와 현지인 교사가 함께 영어 외에 수학, 사회, 과학 등 기타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교육을 말한다. 영어몰입교육은 1960년대에 프랑스어를 쓰는 캐나다 퀘벡 지역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이후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영어 사용이 일반화된 나라의 일부 지역이 도입하고 있다(EBS 지식채널e, 2008).

리 강의를 영어로 진행하면 4학점을 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K대 등에서는 교수가 영어강의를 수행할 시 1학점 당 50만원씩을 지급해주고 있으며, 또 다른 대학들은 경제적 보상과 함께 교수 업적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영어강의 비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그리고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수를 채용 시 우대해주는 대학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신입교수들에게 영어강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영어강의 비율이 확연히 증가되었고 영어강의가 대세인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대학의 영어강의의 확대시행에 대한 강조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Arden-Close, 1993; Olsen & Huckin, 1990) 그 결과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한 심사숙고도 요구된다. 특히, 영어강의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이며 실증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현재의 시점에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영어강의를 확대시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다각도로 제기하여 영어강의 확대시행에 대한 심사숙고의 계기가 되는 글의 제공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첫째, 영어강의의 효과성, 둘째, 세계화 및 대학 경쟁력 강화의 준거, 셋째, 사회 불평등, 그리고 넷째, 우리말의 언어적 가치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대학의 구분별한 영어강의 확대 시행이 갖는 비판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영어강의 확대는 효과성이 있는가?

대학에서 영어강의를 구분별하게 확대 시행하려는 추세와 관련하여, 가장 크게 의문이 드는 것은 '과연 영어로 강의를 하는 것이 학생들 및 교수들에게 도움이 되며 그 효과성에 있어서도 입증되기 때문인가?'이다. 그리고 영어강의의

효과성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교수자 및 학습자의 영어강의에 대한 만족도, 이해도, 동기유발, 자율성 등이 높게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영어강의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그렇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이주연(2008)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교에서 원어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인지하는 원어강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들은 동료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 영어시험 불안, 의사소통불안을 경험하며, 수업 중 모험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들은 영어강의의 장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수업의 적극적인 참여 정도나 수업에 대한 흥미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밝혔고, 많은 학생들이 영어권 생활경험이 없고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영어강의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배성혜(2007)의 연구에서도 전공영어강의 수강생들의 전반적인 영어 학습 동기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강순희 등(2007)의 연구에서도 전공영어강의가 전공지식의 향상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어강의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강순희 외, 2007; 강소연·박혜선, 2004; 배성혜, 2007)에 의하면, 자신의 영어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학생일수록 영어강의의 효과와 만족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자신의 영어능력이 낮다고 평가하는 학생일수록 영어강의의 효과와 만족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영어강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는 학생 개인의 영어능력 여하에 따라 전공수업의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만들고, 그 결과 영어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전공수업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는 데에도 불리한 위치에 처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영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공수업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하는 데 문제를 갖게 되면 전공수업에 대한

동기유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학생의 대학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즉 영어능력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인해 비록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전공수업에 대한 낮은 이해와 불만족 그리고 낮은 성적을 받게 되면 전공수업 자체에 대한 무관심과 포기 상태로까지 이어지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무서운 현상은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²⁾의 개념에 의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영어강의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대학들이 영어강의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반강제적인 방법으로 시행하기 때문이다. 배성혜(2007)는 대학의 전공 영어강의 수강생들의 수강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소재 Y대학, 서울소재 K대학, 원주소재 Y대학에서 영어강의를 수강하는 33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영어강의 수강생들의 수강이유는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필수과목, 재수강, 시간표 조정 불가 등)와 절대평가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순희 등(2007)의 연구에서도 영어강의 수강 동기는 필수과목에 따른 의무학점 이수 때문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강의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영어강의 교수자와 학습자의 준

비성에 대한 문제이다. 강순희 등(2007)은 146명의 사범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 영어강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연구결과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영어능력이 영어강의 수강에 부족하고 영어강의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반응이 나타났다. 또한, 강순희 등(2007)은 영어강의 수강 시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서 과제 발표하기, 질문하기, 보고서 작성하기의 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역시 영어강의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영어 표현 및 이해능력 향상이 전제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말하기, 듣기의 구어능력 신장이 우선되어야 함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영어강의 교수자와 학습자의 준비성에 대한 문제는 바로 강의의 질적인 문제로 귀착된다. 강소연과 박혜선(2004)은 영어강의를 진행하는 교수들 역시 수업준비 부담의 증가와 제한된 영어 구사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수업에 대한 부담은 궁극적으로 수업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토론이나 발표는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학생들의 문법적인 오류나 부정확한 단어 사용에 대한 피드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영어강의의 질적인 문제에 대한 이러한 우려는 강순희 등(2007)의 연구에서도 밝혀진다. 즉 강순희 등(2007)의 연구결과, 전공수업 영어강의를 수강했던 학생들이 영어능력 향상에 대해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과는 달리, 전공 지식의 향상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수의 몇몇 학과를 제외하고는 전공수업의 결과가 영어능력의 다소 향상을 가져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해당 전공에 대한 심도 깊은 지식과 이해 그리고 흥미를 갖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즉, 대학교에서의 전공수업에 대한 본질적인 목적이 영어라는 수단

2) 과학자들은 셔틀 박스의 개들에게 전기 쇼크를 주었을 때, 실험집단의 개들(이미 개들에게 전기쇼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피하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없다는 훈련이 된 개들)은 통제집단의 개들(이전에 전기쇼크를 주지 않았던 개들)과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통제집단의 개들은 전기 쇼크를 받으면 미친 듯이 점프하고 활동이 크지만, 실험집단의 개들은 전기 쇼크를 받으면 잠깐 동안만 반응을 보인 후 드러눕고 끄끙 앓는 소리를 내었다. 실험집단의 개들은 이미 별도의 훈련 기간을 통해, 전기쇼크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셔틀 박스의 중간에 설치된 벽을 넘으면 고통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Seligman(1975)은 이러한 현상을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이라고 확인하였다. 학습된 무기력의 현상은 이후의 다른 실험에서도 확인되었다.

적인 목적에 의해 목표전도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를 유발시킨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학의 전공수업의 영어강의에 대한 효과성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연구 결과가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물론, 대학영어강의에 대한 효과에 있어 긍정적인 연구결과도 극소수로 나타나지만 연구방법에 있어 결정적인 결함을 지닌다. 즉 오선희(2008)의 연구결과에서는 학생들이 영어전용강의를 통해 전공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많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의 영어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연구대상에서 영어전공자(51명)와 비영어전공자(49명)로 총 100명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영어전공자가 더 많이 포함되어 전반적인 평가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되도록 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학영어강의와 관련한 문제는 비영어 관련 전공에까지 영어강의로 진행하는 것에 따른 문제를 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연구에서 요구되는 표집 수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하기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의 유의한 차이를 일반화하지 못했다는 한계점도 갖는다.

따라서, 최소한 영어강의가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이라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 영어강의가 효과적이라서 확대 시행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상실한다고 하겠다.

2. 영어강의 확대는 국제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의 준거로 적합한가?

영어강의 비율을 높이려는 이유에 대해 대학들은 국제화 시대에 대학생들이 영어를 잘하면 개인, 학교, 국가 차원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주요 학자와 기관들이 대학의 국제화 및 경쟁력의 평가에 포함시키는 요소들에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이 반강제적으로 비율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영어(외국어)강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학교육의 국제화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Mestenhauser(2002)는 국제화를 유지하기 위한 측면에 초점을 두어 (1) 통합적 국제화 교육정책, (2) 메커니즘 평가 및 감독, (3) 전략적 계획, (4) 지배 구조, (5) 예산 및 자원 배분, (6) 교원개발 프로그램, (7) 국제화된 교육과정, (8) 국제적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9) 국제화 교육에 대한 장려 및 홍보, (10) 지속성을 국제화 요소로 포함시켰다. 또한, Green과 Olsen(2003)은 미국 대학들의 국제화를 위한 지침에 초점을 두어 (1) 명시된 방침(사명, 목표, 비전), (2) 국제화를 위한 환경, (3) 전략, (4) 구조, 정책 및 실천, (5) 교육과정 및 공동 교육과정, (6) 해외연수 및 인턴십, (7) 다른 나라 기관들과의 협정, (8) 캠퍼스 문화, (9) 개별 활동들 간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 (10) 국제화 노력들의 강점과 약점 및 권고 사항, (11) 전략적인 실행 계획을 국제화 요소로 포함시켰다(김경근 외, 2008, 재인용).

그리고 ACE(American Council on Education)는 대학의 국제화 지표로서 (1) 국제화를 위한 헌신(국제화 교육 명시, 전략적 계획 마련, 국제화 담당 특별부서 설치, 학생 모집 시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활동 강조, 교수의 국제경험 고려, 학생들에게 외국에서의 학업을 강조하는 지침 등), (2) 외국어 요구 조건 강조(학생 모집 시 외국어 점수 요구, 외국어 졸업 요구 조건, 대학에서 제공된 외국어 수업, 외국어 강좌 수강 학생 수 등), (3) 교육과정의 국제화(국제적 주제,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을 다루는 수업 이수 요구 등) (4) 조직적 인프라(국제교육활동과 프로그램 관리 형태, 교수 및 학생들 대상으로 한 국제화 교육에 대한 정보 공지, 국제화에 관한 정보 소식지 발간, 외국에서 온 학생들과 교내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체계 구비, 홈페이지 상의 국제 프로그램 및 이벤트에 관한 페이지 이동 링크 등), (5) 교육과정 외 국제 활동 프로그램(교수들을 위한 국

제화와 관련한 각종 워크숍 개최, 학생들을 위한 해외연수 및 국제 인턴십 그리고 현장연구 제공, 학생들에게 제공된 교육과정 외 프로그램의 종류 등), (6) 재정 지원(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연수 그리고 교내의 국제 활동 기회제공을 위한 학생 1인당 지원한 평균 금액, 국제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위한 재정 지원,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 교수에게 제공한 국제 활동 재정 지원, 교육과정의 국제화를 위해 교수 1인당 지급된 평균 비용)을 포함시켰다(김경근 외, 2008, 재인용).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학자들 및 기관들에서는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서 특정한 외국어의 강의 비율만을 획일적으로 강조하지 않고 매우 다양한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원하는 데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의 국제화에 관한 많은 요소들 중에서 '외국어 요구 조건 강조'만 보더라도 대학에서는 다양한 외국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들에게는 일정한 외국어 점수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외국어 수업을 듣게 하거나 교수들에게 전공을 불문하고 강요하는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의 일부 언론기관에서 대학평가 지표로 삼고 있는 '글로벌 지수'의 항목으로 대학의 영어강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며, 대학들 차원에서도 진정으로 국제화를 도모하기를 바란다면 영어강의 비율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소개된 많은 요소들을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대학경쟁력 순위평가에 있어 주요 기관들의 평가항목 및 지표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먼저, U.S. News and World Report는 1983년부터 매년 American Best Colleges라는 책자를 통해 미국 내 대학들의 순위를 발표해오고 있고, The Times는 1990년대 초반부터 영국대학들의 순위를 발표해오고 있으며, Maclean's는 1996년

부터 매년 47개의 캐나다 공립대학의 순위를 Maclean's Guide to Canadian Universities라는 책자를 통해 발표해오고 있다(이영학, 2007).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경쟁력을 평가하는 주요 기관들에서도 대학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특정한 외국어의 강의 비율만을 획일적으로 강조하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경쟁력 평가기관인 U.S. News and World Report, The Times, Maclean's는 자국 내에서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적합성 등에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언론기관의 대학순위평가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중앙일보의 대학평가는 지표개선 등을 통해 더욱 정교화 되고 있어(이영학, 2007), 앞으로도 대학들이 대학교육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언론기관이 제시하는 평가 항목 및 지표 그리고 결과에만 더욱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최소한 대학에서 영어강의를 반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국제화 및 대학 경쟁력 강화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영어강의를 국제화 및 대학 경쟁력 강화의 준거로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하겠다.

3. 영어강의 확대는 사회 불평등 문제와 무관한가?

대학에서 영어강의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외국인자본론과 사교육비 문제 등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외국인자본론이란 오욱환(2000)이 한국사회의 교육열에 대한 고유 이론모형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교육출세론, 집단경쟁체제론, 경험확대공유론, 외국인자본론을 들어 설명하면서 비롯된

<표 1> 주요 기관의 대학경쟁력 순위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기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U.S.News	동료평가	· 타 대학의 총장, 학장, 입학처장 등에게 해당 대학의 학업 우수성에 대하여 5단계로 평가하도록 함.	25
	학생유지	· 6년 이내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 비율 · 신입생의 다음해 재등록 비율	20-25
	교수자원	· 수업당 학생수 · 교수급여 · 박사학위소지자 비율 · 교수대 학생 비율 · 전임교수 비율	20
	학생의 우수성	· 입학시 SAT/ACT 점수 · 고교에서 학급내 상위 10 학생 또는 해당 고교 전체 상위 25% 학생의 비율 · 지원자 대비 입학자 비율	15
	재정지원	· 학생당 교육비	10
	예상졸업률 달성도	· 6년전 입학생의 예상 졸업률과 실제 졸업률의 차이	5
	동장생	· 최근 2년간 동장 중 학교 기부자 비율	5
The Times	학생만족도	· 학생들의 재학 중 학습경험에 대한 만족도	150
	연구역량	· 국가연구력평가인 RAE(Research Assessment Exercise) 자료	150
	입학수준	21세 이하 신입생의 tariff ³⁾ 점수	100
	학생-직원 비율	· 대학의 직원 수 대비 학생 수	100
	도서관 및 정보화 지출	· 도서관 및 정보화에 대한 학생당 지출액	100
	복지 지출	· 학생복지를 위해 지불한 학생당 경비	100
	우수졸업생 비율	· 졸업생 중 first-degree honors, second-degree honors 수여자 비율 ⁴⁾	100
	졸업 현황	취업 및 진학자 비율	100
	수료	졸업이 예상되는 학생 비율	100
	Maclean's	학생	· 평균 입학 등급 · 상위 25% 이상 학생들의 입학 비율 · 타 주 거주 신입생 비율 · 신입생 중 외국인 비율 · 졸업률 · 대학원생 중 외국인 비율 · 학생의 수상 실적 · 학생 재등록률
수업		· 강좌 당 학생 수 · 전임교수 담당 강좌 비율	17
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 · 전임교수당 수상 실적 · 교수 당 평균 보조금 액수 · 교수 100인당 보조금 수령자 수	17
재정		· 전일제 학생 당 실행예산액 · 실행예산 중 장학금 비율 · 실행예산 중 학생서비스 관련 비용의 비율	12
도서관		· 전일제 학생 당 장서 수 · 도서관 예산 중 도서구입비 비율 · 실행예산 중 도서관 예산 비율	12
평판도		· 최근 5년 간 졸업생 중 기부자 비율 · 국가 평판도 순위	19
중앙일보	교육여건 및 재정	· 교수당 학생 수 · 교수 확보율 · 학생당 장학금 · 장학금 수혜율 · 등록금 대비 장학금 환원율 · 기술사 수용률 · 학생 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 · 현장실습강좌 참여 학생 비율 · 학생당 교육비 · 교육비 환원율 · 세입 중 납입금 비율 · 학생증원율 · 중도포기율	120
	국제화	· 외국인교수 비율 · 외국인 학생 비율 · 해외과건 교환학생 비율 · 영어강좌 비율 · 국내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	70
	교수 연구	· 교수당 외부지원 연구비 · 교수당 외국 연구과제수 · 교수당 자체연구비 · 교수당 국내논문 수 · 기술이전 수입액 · 교수당 SSCI, HCL, SCI 논문 게재 수 및 논문 피인용 수 ·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 지적재산권 출원 현황 등	170
	평판 사회진출도	· 졸업생 부문 · 학교 부문 · 취업률 · 고시합격자 수 · 거래소, 코스닥 상장업체 임원 수 · 공인회계사, 변리사 합격자 수	110
	개선도	· 교수당 연구비 · 학생당 교육비 · 교수확보율 · 학생당 장학금 · 교수당 학생 수	30

*출처: 이영학(2007). 대학 순위평가의 국가 간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17(3), 139~165에 있는 내용을 재정리한 것임.

3) UCAS(Universities and Colleges Admissions Service)에 의해 관리되며 학생의 다양한 성취를 포인트를 통해 점수화한 것으로 고등교육기관 입학 시 우리나라의 수능점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이영학, 2007).

4) 영국은 고등교육기관 졸업 시 졸업자격시험(Honors Level Exam)을 실시하는데, 이 시험의 결과에 따라 first, second, third degree honors를 부여한다(이영학, 2007).

개념이다. 즉 외국어자본론은 조선시대, 일제시대, 미국 점령시대, 그 후 지금까지 외국어가 한문, 일본어, 영어로 언어의 종류만 바뀌었을 뿐 출세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고, 출세를 위해 유리한 조건이 되는 외국어 습득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그것이 중요한 자본으로 기능을 하게 되며 너무 과도하면 외국어에 종속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대학의 전공수업을 영어로 강의하는 것이 보편화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어자본론으로서의 영어가 더욱 강세를 띠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영어는 단순한 실용적인 외국어로서의 기능을 넘어 대학교육을 위한 절대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 하지만 정작 이와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미국문화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절대적으로 커지고 급기야는 문화적 종속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거의 모든 문화측면에서 미국의 규범, 가치, 경험, 실체가 중대한 기준으로 자리매김 되고, 미국의 것이 모범답안이고 만병통치약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쉬운 예로, 학문 영역에서도 미국에서 발행된 단행본의 내용을 독해할 줄 알아야만 하고, 학술지의 영어로 된 논문 내용을 더욱 공부하고 인용하고 파급될 것이다. 이로 인해, 정작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주체성은 혼미해지고 미국에 대한 중요도와 의존도가 급증하여 결국 종속상태로까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이경원(2001)도 강조하고 있다. 즉, 이경원(2001)은 영어는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의 연속성과 차이를 말해주기 때문에 영어라는 언어매체는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상징적인 연결고리가 됨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19세기 팍스 브리태니카와 20세기 팍스 아메리카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중심부와 주변부의 불균등한 권력관계를 합리화하는 문화제국주의가 영어를 매개로 실천되었다는 사실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문화제국주

의가 과거의 식민주의 시대에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했지만, 신식민주의 시대에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영어의 이데올로기적 폭력이 신식민주의 시대에 와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많은 대학생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연구결과가 있다. 즉, 이주희(2008)는 대학 영어전공강의라는 한 사례를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도 겸행하여, (1) 세계화를 통한 영어의 전 세계적인 팽창으로 한국사회에서 영어가 사회의 억압된 형태로써 존재하고 이러한 사회적 억압은 개인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만들고 부추기고 있다는 것, (2) 우리 사회의 공적 영역의 한 부분인 학교의 영어전공강의 제도를 통해서 영어 이데올로기가 강화·재생산되어 거대한 억압의 형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3) 영어의 적극적인 수용을 통해서 정신적인 사고까지도 미국문화에 종속됨으로써 미국 종속적 사고의 획일화 및 영어 제국주의적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4) 표면적으로는 영어의 세계적인 팽창으로 인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의 뿌리인 문화정체성의 혼란과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무의식적으로 영어가 일상생활 속에 침투해 있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정체성에 영향을 받고 미국 중심적 사고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5) 학생들은 영어를 권력의 도구로 생각하며 영어 하나만 습득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내면화하여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면 우리나라의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영어를 잘해야만 출세할 수 있다는 점을 피부로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영어에 대한 사교육비 증가의 극대화에 따른 사회문제도 쉽게 예상된다. 사회경제적 여력이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영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한 조기유학 같은 사회문제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고, 조기유학을 시킬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서는 주말이나 방학 때 국내의 영어마을 또는 유명 영어학원에라도 자녀를 보내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대학교육에서 영어강의의 확대 시행 문제는 단순히 대학 내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이하로까지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히 전달하여 영어교육에 대한 사교육 열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영어강의의 확대 시행으로 인해 영어는 사회계층의 결정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 또는 영어실력에 있어 다른 사람보다 경쟁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정규 학교교육의 영어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유학 및 학원 등에서 영어 학습을 보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영어 학습을 별도로 추가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요구되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영어능력이 결정될 수 있다. 그 결과로 어려서부터 자녀의 영어교육을 원만하게 지원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에 더욱 뚜렷한 재생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어가 사회계층 간에 상징적 폭력으로서의 부정적인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대학의 무분별한 영어강의 확대 시행이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더욱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이준구 교수는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의 둘러싼 호들갑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영어 숭배주의’와 맥이 닿아 있다. …(중략) 사정이 이렇다보니, 아직 우리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애에게 영어 과외를 시키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중략)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근본을 바로 잡는 일이다. 우리말 가르치기는 소홀히 하면서 영어 가르치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의 세태를 보면서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영어강의 확대 시행이 그 결과로 우리 사회의 사교육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교육이 사회계층의 불평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4. 영어강의 확대는 우리말의 언어적 가치에 무해한가?

대학에서 영어강의가 계속 확대 시행되어 보편화되면, 그 결과로 학생과 학부모 및 대다수의 국민들이 영어를 잘해야만 대학도 진학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에 대한 (사)교육에 더욱 매진할 것이고, 그 결과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반적으로 영어를 많이 포함시켜서 사용하는 현실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영어에 대한 인식 및 실제 사용에 있어 그 가치가 중요시 되면, 우리말의 언어적, 사고적, 문화적 가치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문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수많은 언어이론들을 면밀히 비교 검토해보면 그 안에는 두 가지 상반된 언어관이 끊임없이 대립되고 있다. 즉, 어떤 언어와 그 언어가 표상하는 실제세계나 관념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주장과 양자 사이에는 내적인 필연성이 없고 단지 자의적인 관계만이 존재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있어서 사고 우선적 입장과 언어 중심적 입장으로 견해의 차이가 나타난다. 하지만 언어가 사고에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점에서 사고 작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언어는 인간의 사유를 이끌어 갈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성적인 지각작용에도 개입한다는 것도 쉽게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이다(장병기, 2000).

언어와 사고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을 언어의 상대성(linguistic relativity)이라고 한다. 즉, 언어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주위의 세계를 지각하고 조직하는 방법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다(박종갑, 2006). 그

래서 서로 다른 언어는 서로 다른 세계관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서로 다른 언어들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로 하여금 세계를 보는 사고방식을 다르게 갖도록 조종하거나 강제한다는 언어적 결정론(linguistic determinism)이 있다(Dalby, 2002; 오영나 역, 2008). 따라서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언어가 사고 및 정신과 어떻게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는 다음과 같은 정영근(1999) 논지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언어는 정신적 힘에 추후로 첨가된, 따라서 정신적 힘이 없어도 가능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정신적 힘의 필연적 표출 그 자체이다. 정신적 힘과 언어는 때려고 해도 뗄 수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정신적 힘의 활동을 통찰하는 일은 언어 밖에서 파악될 수 없다. 왜냐하면, 언어를 떠나서는 그 어떤 아르키메데스적인 점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언어를 설명하는 최고의 원리’로서의 정신적 힘은 보류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힘의 활동이 언어이고 역으로 언어로부터 정신을 확인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중략) 정신은 언어를 매체로 해서만 발달하며 자신의 표출로서의 언어에 정신적 특성을 부여한다. 또한, 인간의 정신적 힘은 언어에서 현현된다. 언어는 모든 인간의 개별적 그리고 사회적 발달단계에 앞서 존재하며 그러한 발달의 근거를 이룬다. 언어는 인간이 사고하는 데에 필수적인 조건이며, 그에 따라 인간의 실존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 (중략) 감각의 활동은 정신의 내면적 활동과 종합적으로 연결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에서 표상이 떨어져 나오면서 주관적 힘에 대치되는 객체가 되고, 그런 다음에 그 표상이 객체로서 새롭게 지각되어 주관적 힘에 되돌아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언어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언어의 작용을 통해 언제나 암암리에 주체로 되돌아 작용

하도록 되어 있는 객관성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다면 개념의 형성은 물론 모든 진정한 사유가 불가능하다. … (중략) 사유는 사유 그 자체로서 언어를 필요로 한다. 사유는 그 본질상 언어적일 수밖에 없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유가 표현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외면적 사유’이며, ‘사유는 내면적 언어’로서,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정영근, 1999).

이렇듯, 정영근(1999)은 인간은 언어에 의해 구성된 세계 안에서 살고 있고, 인간존재와 그의 삶이 언어라는 울타리 안에서 형성되고 구체화되므로 언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언어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그런데, 인간은 언어를 후천적으로 습득하게 되며, 바로 그 점에서 우리가 언어교육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는 과제가 드러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언어교육의 문제를 교육의 특수한 부분적 문제로 파악해서는 안 될 것이고, 언어교육을 교육의 의미 전체를 포괄하는 가장 핵심적 내용이며 인간의 전인적 도야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공통된 사고방식은 일정한 문화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겸손 문화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언어(“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른 공경의 문화도 존칭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문화와 비교하여 볼 때, 영어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겸손과 어른 공경의 문화가 발달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언어가 발달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영어강의를 무분별하게 확대 시행한 결과로 일상생활 속에서 영어의 사용이 자연스럽게 증가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언어와 사고 그리고 문화와의 관련성 차원에서 대학의 영어강의 확대 시행을 우려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영어의 간접

적인 사용, 즉 표현은 우리말로 되었지만 원래 의미는 영어인 사용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영어의 간접적인 사용이 늘어나는 것도 사회적으로 영어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이고, 대학의 무분별한 영어강의 확대 시행이 그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최근 들어 일상생활 속의 인사말 중에 “좋은 아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영어의 “Good morning”을 번역한 인사법이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역시 영어의 “Have a nice day”를 번역한 인사법이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인사법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등이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을 자연스레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겸손 문화가 내포된 인사법이 아니다. 즉, 칭찬에 대한 겸손의 언어가 내재된 전통적인 인사법은 “아닙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부족합니다만,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과 같았다.

‘언어는 대화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순간 죽는다’는 정의가 있다. 대학에서 무분별한 영어강의 확대 시행을 한 결과가 우리의 언어, 사고방식, 그리고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Dalby(2002)는 언어가 사라져 갈 때 문화의 가장 심오한 부분들 역시 사라진다고 하였다. 즉 언어가 사라지면 경험을 개념화하고 사고를 서로 연결시키며 다른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식이 사라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Dalby(2002)는 언어의 소실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확실하게 분리시키며, 또한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되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온다고 강조하였다.

김명환(2007)은 과거 일본의 강점기 시절에 있었던 한글 말살 정책과 오늘의 영어 광풍을 동일 선상에 놓고 살피는 것은 좀 우스꽝스러울지 몰라도, 둘을 견주어 한번쯤 깊이 성찰해볼 시사점

들은 분명히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적어도 언어의 선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생활 전반과 직결된 총체적인 사안임을 환기시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영어의 문제는 단순히 외국어 습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나아가갈 방향이 무엇이나는 전망과 연결된 심각한 사회적 쟁점이며, 우리는 우리말과 전통을 버리고 미국화를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적절한 교육정책과 학문정책을 통해 영어구사력을 갖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문화와 학문을 가꿔 나가느냐는 갈림길에서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세계화와 개방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대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면서 우리 역사에 뿌리박은 학문과 문화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세계화와 공동체의 주체성은 결코 상호배타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어강의는 단순히 강의를 우리말이 아닌 영어로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넘어, 영어강의의 확대 시행이 우리사회의 언어에 있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하며, 그와 함께 언어가 사고방식 및 문화에 미치는 영향 차원에서라도 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영어강의 확대 시행이 신중하게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Ⅲ. 결론

대학교육에서 국제화 시대에 국제공용어로 인정받고 있는 영어를 잘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들에서 전공의 특성 및 필요성, 교수 및 학생의 자율성 등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영어강의를 확대 시행하는 것은 대학교육의 목적, 원칙, 철학⁵⁾ 등에 견주어 반성

5) 김명환(2007)은 현재 대학에서 강요하는 영어강의가 과연 고등교육기관에 걸맞은 철학과 원칙 위에서 실행되는지 의문스럽고, 지적 활동과 사회생활의 수단

적 사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본문에서 살펴봐왔듯이, 영어강의의 무분별한 확대 시행이 영어강의의 효과성, 국제화 및 대학 경쟁력 강화의 준거, 사회 불평등, 우리말의 언어적 가치 측면에서 부정적이고 부적합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건주어서라도 무분별한 영어강의 확대 시행을 재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하겠다.

대학교육의 목적과 관련하여, Fichte(1971)는 대학교육이 전문성을 인식하고 있고 학문적 기법을 배울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수가 책에 쓰여 있는 대로의 강의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Hutchins(1950)는 대학교육의 진정한 목적을 진리 또는 도덕성의 함양에 두었고, 대학교육은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보다는 사회에 불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하고, 사회를 조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대학교육이 학생들의 독립적 사고와 비판 의식을 고무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천정미, 2003, 재인용).

이렇게 볼 때, 대학교육에서의 학문의 본질적인 기능과 목적은 영어능력 향상보다 수업에 대한 흥미를 갖고 수업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와 학생의 영어강의에 대한 사전 준비와 이해능력 부족이나 전공의 특성상 영어강의가 적합하지 않는 것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볼 때, 영어강의의 원만한 운영과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도 증진이 함께 병행되지 못한다면 무리한 영어강의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모국어로 강의하여 학생들의 학문적 깊이와 이해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영어강의의 효과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의 영어강의에 대한 준비와 이해능력이 갖추어져야 하고, 영어강의의 참여가 자율적이어야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영

어강의가 해당 전공의 성격과 필요성에 부합해야만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무시한 영어강의 시행은 오히려 대학 강의의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다.

본질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단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대학의 영어강의 확대시행에 대해 이준구 교수의 다음과 같은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왜 비효율적인 영어강의를 고집하느냐고 물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대답이 나온다. 설사, 영어강의를 통해 영어실력이 약간 향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하더라도, 교육내용의 부실화를 정당화하기에는 엄청나게 부족한 근거다. 대학은 학문을 전수하는 곳이지 영어학원이 아니다. 영어를 좀 더 잘하게 만들려고 철학, 역사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대학 스스로가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영어강의를 통해 대학교육의 본질이 얼마나 훼손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 …(중략) 학교당국의 공식방침으로 영어강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학생들에게 일정량 이상의 영어강의 수강을 의무화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교육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영어강의 의무조항이 들어간 신입교수 계약은 현대판 ‘노비문서’와 다를 바 없다. 우리 대학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영어강의 비율을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허영심’ 말고는 다른 대답을 찾을 수 없다. 학생들이 정말로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우리 대학은 이 정도로 국제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욕심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중략) 자기대학의 영어강의 비중이 높다는 자랑을 늘어놓는 교수가 있다면 영어강의를 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 알량한 영어강의 때문에 학생들이 얼마나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교육이 얼마나 황폐해져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

을 우리말에서 영어로 바꾸려는 비현실적이고 잘못된 방향을 택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였다.

아야 한다. 나아가 대학당국은 영어강의의 실제 효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엄밀한 검증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 (중략) 영어강의 폐해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우리말을 업신여기는 태도다. 지식인이라면 우리말을 더욱 아름답고 세련되게 가꾸어 나가는 작업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닌가? 학문 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그것을 해내야만 우리 학문의 자생적 발전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영어는 우리에게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 데도 마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양 호들갑을 떠는 것은 우리 지식인의 슬픈 모습이다. 그런 어쭙지 않은 사대주의와 허영심으로 어린 세대들에게 과연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심히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우리나라의 소위 명문대학교들이 영어강의 비율을 확대하는 움직임에 동조해야만 최소한 뒤처지지 않는 대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불행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고, 대학평가에 있어 영어강의 비율이 하나의 준거로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학교교육의 상아탑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육에서 합리적이고도 이성적인 그리고 주체적인 철학과 신념이 근본이 되지 못한 정책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강소연·박혜선(2004). 영어강의의 실태 및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 성향에 관한 조사 연구, 연세교육연구, 17(1), 33~53.
- 강순희·서혁·신상근·이종원·이현주·최진영(2007). 사범대학 영어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교과교육학연구, 11(2), 637~656.
- 김경근·김정숙·이계형(2008). 세계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분석 및 그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18(4), 83~111.
- 김명환(2007). 시평: 대학의 영어 강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안과 밖(영미문학연구), 22, 243~259.
- 박종갑(2006). 언어와 사고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다의어 비교를 통해, 우리말연구, 19, 299~323.
- 배성혜(2007). 대학의 전공 영어강의 수강학생들의 영어학습동기 및 수업만족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오선희(2008). 영어전용강의의 효과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오영나(역)(2008). 언어의 종말. 서울: 작가정신.
- 오욱환(2000). 한국사회의 교육열: 기원과 심화, 서울: 교육과학사.
- 원효현(2006). 교수효과성의 본질에 관한 고찰, 수산해양교육연구, 18(3), 218~228.
- 유지연(2004). 영어로 진행되는 대학영어 강의에 나타난 교사 언어에 관한 연구: 대학교양 영어 독해수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경원(2001). 영어제국주의와 탈식민적 저항의 가능성, 영미문학연구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
- 이영학(2007). 대학 순위평가의 국가 간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17(3), 139~165.
- 이주연(2008). 원어강의에 대한 인식과 효과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주희(2008). 대학에서의 영어전용전공강의와 문화정체성에 대한 연구: 영어전용전공강의의 수강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장병기(2000). 사고와 언어, 동서문화연구, 8(1), 155~168.
- 장한기·조영주(2006). 교사들의 갈등관리 유형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 수산해양교육연구, 18(3), 379~389.
- 전지현(2002). 대학 영어 강의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 외국어교육, 9(4), 233~251.
- 정영근(1999). 빌헬름 폰 훔볼트: 인간·언어·교육, 서울: 문음사.
- 천정미(2003). R. M. Hutchins의 교양교육의 개념과 대학교육의 목적, 교육철학, 23, 299~313.
- Arden-Close, C.(1993). Language problems in science lectures to non-native speaker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12(3), 251~261.
- Dalby, A.(2002). *Language in danger*, Allen Lane: The Penguin Press.
- EBS 지식채널e(2008). 지식e season3, 경기도: (주)북하우스.

- Fichte, J. G.(1971). *Fichtes Werke*, Berlin : Dermstade, 27
- Freeman, D.(2002). The hidden side of the work: teacher knowledge and learning to teach, *Language Teaching*, 35, 1~13.
- Green, M. F., & Olsen, C.(2003). *Internationalizing the campus: a user's guide*, Washington, D.C: ACE.
- Hutchins, R. M.(1950). The university and the mind of the age, *Measure*, 1, 4.
- Mestenhauser, J. A.(2002). In search of a comprehensive approach to international education: a systems perspective, In W. Grunzweig & N. Rinehart(eds.), *Rockin' in red square: critical approaches to international education in the age of cyberculture*, LIT VERLAG.
- Olsen, L. A., & Huckin, T. H.(1990). Point-driven understanding in engineering lecture comprehension,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9(1), 33~47.
- Seligman, M. E. P.(1975).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
- 논문접수일 : 2010년 01월 04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0년 01월 22일
 - 게재확정일 : 2010년 02월 08일